



이런 대학 노려라! '목포대학교'

서해안경제권 거점대학의 맹주



◆ 임병선 목포대학교 총장

정부는 호남 광역경제권 신성장 선도산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부품소재' 두 개 분야를 선정하였으며, 교과부에서 시행하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에 올해 6월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목포대학교가 선정되었다.

지역특화 우수 약학대학을 설립하기 위해 노력중인 목포대학교가 지난 10월 까지 국책사업 및 각종 연구개발사업비 1,500억원을 확보하며 지역특화 우수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계적 지역특화산업 연계 우수인재양성과 약학대학 등 경쟁력 있는 학과 개설에 총력

목포대학교는 현재 해상풍력중심 신재생에너지 인재양성센터와 IT기반 서남권 중형 조선산업 지역혁신센터, 2009년 지역대학 유일의 인문한국(HIK)사업에 선정된 도서문화연구소 등 지역특화 연구 및 산업과 연계된 24개의 센터와 30개의 연구소, 2개의 학교기업에 87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인재양성사업에 500억원, 지역사회서비스사업에 25억원, 기자재 확충에도 100억원 등 65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목포대학교 연구 성과는 매년 증가하여 국내·외 학술지(SCI급) 우수논문이 최근 3년간 평균 30%이상 증가하였고, 특허 출원 등 지적재산권이 평균 200%씩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오면서 대학의 연구역량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목포대학교가 이처럼 많은 국책사업을 맡게 된 것은 서남권 중심대학으로 그동안 쌓은 연구역량 및 발전 가능성이 검증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목포대학교는 이러한 연구역량을 기반으로 2011학년도 약학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 유일의 자연과학대학을 중심으로 약학 관련 연계학문체계를 이미 구축하였고, 또 400억원 이상의 자체 재원과 20여명의 교수총원 인력을 확보해 정부 지원 없이도 자체 운영이 가능하도록 탄



◆ 식품산업 지역혁신센터 실험실에서 성분분석 중인 연구원.



◆ 해상풍력중심 신재생에너지 인재양성센터 자료사진

탄하게 준비하고 있다.

해상풍력중심 신재생에너지 인재양성센터-9개학과 참여 5년동안 총 237.5억원을 지원받아 글로벌 인재 1,000여명 양성

정부는 호남 광역경제권 신성장 선도산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부품소재' 두개 분야를 선정하였으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하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에 2009년 6월 전남도에서는 유일하게 목포대학교가 선정되었다.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부의 광역경제권 신성장 선도사업 육성계획과 연계하여, 대학이 선도산업 발전에 필요한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공급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 있는 광역경제권 창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상풍력중심 신재생에너지 인재양성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에는 기계공학과, 조선공학과, 해양시스템공학과, 토목공학과, 환경공학과, 정보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제어로봇공학과, 신소재공학과(총 9개학과)가 참여하고 매년 47.5억원씩 5년 동안 총 237.5억원을 지원받는다.

센터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실무형 우수 전문 인력을 연간 200여명(총 1,000여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참여 학생에게는 리더장학금, 인재장학금, 도전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금 혜택과 각종 해외연수 프로그램, 예비핵심인재 유치 프로그램, 취업촉진 프로그램, 현장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전라남도는 해상과 육상을 합하여 14

GW의 풍력자원 잠재력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 진행 중으로 해상풍력의 경우에는 단순한 발전단지가 아닌 발전단지와 연관 산업을 동시에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먼저 전라남도 대불산업단지 내에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DMS 기업에게 100% 분양하였으며, 신안군 압해조선단지 내에 풍력발전설비 전용단지 50만평을 조성하여 세계적인 해상풍력기업인 네덜란드 베스타스 및 독일 로텍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신재생에너지 인재양성센터 사업에 기계·조선공학 등 9개 학과 참여

있다. 풍력기업은 풍력베어링 생산공장을 올촌군단에 건설 중인 (주)일진글로벌, 소형풍력 제작사인 해비림에너지가 있으며, 그 외에 포스코의 해상풍력을 수행하기 위한 제작공장 설립추진 등 시험기반구축을 진행하고 그 외에 DMS는 해상풍력실증단지외 생산설비를 건설하기 위하여 지원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어 해상풍력중심 신재생에너지 분야로의 진출을 위한 목포대학교의 노력은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

신약연구 경험과 탄탄한 자체재원으로 약학대학 설립준비 완료

목포대학교가 위치한 다도해는 해양생물자원, 천연약초자원 등이 풍부해 신물질 개발이 쉬운 환경적 이점으로 현재 제약회사와 신약개발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9월 현대약품과 심순환계 질환 치료용 신약 연구개발에 나서면서 교내 공동실험실습관을 운영하며 고효율 치료 효과가 있는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해 올해 5월 국내 특허를 받는데 이어 내년 국제 특허 출원을 앞두고 있으며, 약대설립을 위한 동물실험 센터를 운영하는 등 일찌감치 약대 설립을 위한 기반을 다져왔다.

올해 9월 지역 대학병원, 제약회사, 지방자치단체와 실무 협정을 체결하고 약학대학 설립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목포대학교는 약학 관련 기초 학문체계를 이미 구축했다.

화학과, 물리학과, 한약지원학과, 생명과학과, 해양수산자원과, 간호학과, 식품공학과 등 제약 산업에 필요한 기초 학문을 가르치고 있다. 1988년 개설된 한약지원학과와 천연염

등 각종 기능성 식품을 개발하는 산학협력단을 운영하는 강점을 내세우고 있다. 2015년까지 약대 운영비 210억원을 비롯해 건물 신축비 75억원 등 400억원 이상을 확보했다.

또한 20여명 교수총원 인력도 연계 학문분야 구조조정을 통해 신규 채용에 따른 정부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또한 전남 서남권은 전체 전남인구(193만8000명)의 40.1%로 대부분 농어촌 및 도서지역으로 구성돼 의료 등 복지혜택에서 가장 소외되었고, 노인인구 비율도 19.2%로 전국 최고령화 지역이다.

이 때문에 비브리오패혈증, 간 질환, 만성 퇴행성 질환 등 특수질환 발병률이 높다. 이런 여건을 감안해 목포대학교에 약대가 설립되면 초고령화 사회 맞춤형 보건 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질 높은 의료 및 보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 10억원을 들여 내년에 전임실험 센터를 건립하고 생약자원 발전기금으로 약초원을 조성하는 등 교육 인프라 확충에 나서고 있다.

또한 국내에 진출한 국제백신연구소, 파스퇴르연구소 등 외국 연구기관과 전략적 제휴도 추진하고 있다. 목포대의 목표는 약대 설립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도해 해양생물 자원과 천연약초 등 지역특화 자원을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해 서남부권 의약산업 클러스터로 만들 계획이다.

임병선 목포대학교 총장은 "전남 서남부권은 도청 소재지이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약학대학과 3차 진료기관이 없다.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민에게 양질의 보건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약대 설립 준비를 모두 마쳤다"며 목포대학교 약학대학 유치가 강한 자신감을 내보였다.

손덕원 기자 sdw@eduyonhap.com

